

# 정치적 세대와 집합기억

허석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수료, 비교정치 전공  
homework@korea.ac.kr

- I. 머리말
- II. 세대형성과 정치사회화
- III. 실제 세대와 집합기억
- IV. 한국의 정치세대와 기억의 정치
- V. 경험적 분석
- VI. 맺음말

## I. 머리말

세대란 무엇인가? 세대(generation) 개념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지만, 사회과학에서는 코호트(cohort) 개념과 호환되는 의미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즉, 같은 때에 태어난 집단으로, 같은 시절에 정치 사회화(political socialization) 과정을 거친 까닭에 정치적 태도와 가치관을 공유하는 집단을 말한다. 이러한 세대의 정체성과 고유한 의식은 어떻게 형성되고 지속되는가? 그리고 세대마다 다른 태도와 가치관은 어디서 유래하는가? 보다 근본적으로 세대라는 실체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세대란 1차적으로는 비슷한 시기에 출생한 집단을 일컫지만, 만하임(K. Mannheim)의 지적대로 생물학적 필연성이 아니라 사회적 산물(social creation)이다. 즉, 역사적-사회적 의식을 형성할 만한 사건을 계기로 삼을 때에만 진정한 의미의 세대가 구성된다.<sup>1)</sup> 말하자면, 같은 시대를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세대를 이루는 게 아니라, 인생 전반에 영향을 끼칠 만한 중대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비로소 세대로 구성되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세대규정을 전제하고서 논쟁이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정치적 의미에서의 세대구획은 한국 현대사의 중대사건을 경계로 삼아왔다. 해방 이후 짧은 기간에 내전과 근대화·산업화·민주화·세계화·정보화 등 격렬한 변동을 겪는 동안 일정한 시간을 간격으로 하는 연령집단(age groups)이 각기 저마다의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가령, 전쟁세대, 4·19세대, 6·3세대, 산업화 세대, 386세대, X세대, IMF세대, 88만 원 세대 등 수많은 이름으로 세대가 구획되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수식어로 붙은 중요한 정치적·사회적 사건이 일어난 때의 언저리에 청년기를 보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10대 말, 20대 초반은 정치적 사회화를 겪게 되는 ‘민감한 시기(impressionable years)’<sup>2)</sup>로, 이때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정치적인 정체성, 의식, 가치관과 규범을 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

1) Mannheim, Karl, "The Problem of Generations," P. Kecskemeti ed.,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2[1928]), p. 309.

2) *Ibid*; Sears, David O., "Political Socialization," F. I. Greenstein and N. W. Polsby eds.,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Vol. 2, Reading(MA: Addison-Wesley, 1975), pp. 93-153.

한국에서 이러한 세대 개념의 적용은 말 그대로 가정된 것이지 경험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한국에서 역사적 사건과 시대상을 근거로 가정되어 온 세대구분이 실제로 경험적 근거가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세대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일부로서 집합기억(collective memory)의 문제를 다룬다.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아온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에 대해 각 세대가 집합적인 기억으로 공유하고 있는가를 탐색하는 것이다.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때에 사회의식의 형성기를 보낸 사람들은 그로부터 연유하는 세대의식을 갖게 된다는 가정이 경험적으로도 지지받는 것인지 검증할 것이다. 나아가 세대 내에 공유된 과거(shared past)로서 집합기억은 그 사건에 대한 평가에서 차이를 드러내는 지도 살펴볼 것이다.

이 글에서 사용된 자료는 2004년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주관한 「광복 60주년 국민의식조사」와 2007년에서 2011년에 걸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주관한 「통일의식조사」이다. 두 조사 모두 한국갤럽이 의뢰 받은 것이다.<sup>3)</sup> 분석 결과, 이른바 ‘민감한 시기’ 가설은 부분적으로만 지지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말기(late adolescence)에서 성년 초기(early adulthood)까지의 기간에 경험한 사건을 가장 중요한 기억으로 떠올리는 집단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더불어 중대사건에 대한 평가는 일부에서 세대 간 차이가 나타나지만 실질적인 규모는 크지 않았다.

논문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세대의 개념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정치사회화 과정과 그 결과로써 세대의 개념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다음으로 정치세대와 집합기억의 연관성에 관해 서술한다. 슈만과 스크트의 선구적 연구를 중심으로 논쟁적인 지점에 대해 다룬다. 더불어 한국의 정치세대는 어떻게 나누어져왔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경험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이 글에서 분석하는 자료를 설명한 다음, 분석 결과를 통해 세대구분과 집합기억이 상응하는지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의 발견을 요약하고, 의의를 확인하며,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며 끝맺는다.

3) 자료들은 모두 한국사회과학자료원(www.kosssda.or.kr)에서 구할 수 있다.

## II. 세대형성과 정치사회화

### 1. 세대 개념과 세대구분의 기준

논의를 전개하기에 앞서 '세대'라는 말의 어의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대라는 표현을 통해 여러 다른 의미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우선 '세대'는 동일한 시기에 태어난 코호트(cohort), 즉 출생집단을 지칭한다. 친족 가계(kinship descent)에서 같은 항렬에 속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드물지만 특정한 역사적 시기(historical period)에 생존한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한다.<sup>4)</sup> 사회학계에서 세대를 분석단위로 도입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노먼 라이더이며, 그가 의미한 것도 출생 코호트이다.<sup>5)</sup> 사회과학계에서 '세대'를 통해서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의미가 출생 코호트로서의 세대이며, 이 글에서도 그러하다.<sup>6)</sup>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대는 연령과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근자에 '2030세대'와 같이 생애주기 혹은 연령대를 세대와 합쳐서 조어를 만드는데, 이는 잘못된 용법이다. 왜냐하면 세대는 출생시점을 통해서 고정되는 반면, 연령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기 때문이다.<sup>7)</sup> 가령 어느 세대든 나이가 들면 보수화되지만, 특별히 이념적으로 진보적인 세대가 있다면 다른 세대와 달리 보수화의 정도가 적어야 세대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어느 세대나 비슷한 패턴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세대가 아니라 연령의 효과인 것이다.

세대 문제는 이미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다루어온 주제지만<sup>8)</sup>, 현대적인 의미의 세대연구는 만하임이 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비슷한

---

4) 세대(generation) 개념의 다양한 용례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할 것. Kertzer, David I., "Generation as a Sociological Problem,"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9(1983), pp. 125-149.

5) Ryder, Norman B., "The Cohort As a Concept in the Study of Social Chan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30, No. 6(1965), pp. 843-861.

6) 라이더 자신은 세대(generation)를 친족계보상의 의미로, 코호트(cohort)를 출생시점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지칭하자고 제안했다(*Ibid*, p. 853). 세대연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논문이 세대 개념을 다르게 사용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7) Glenn, Norval D., *Cohort Analysis*(2nd. ed.)(Thousand Oaks, Calif.: Sage Publications, 2005), pp. 2-3.

8) Nash, Laura L., "Concepts of Existence: Greek Origins of Generational Thought," *Daedalus*, Vol. 107, No. 4(1978), pp. 1-21.

시기에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세대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만하임이 보기에 어떤 세대가 의식과 태도, 가치관과 행태를 공유하게 되는 것은 분명히 역사적·사회적 산물이다. 그러한 세대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기는 바로 미성년 말기(late adolescence)에서 성년 초기(early adulthood)까지의 기간이며, 만하임은 17세에서 25세 사이로 지정하고 있다.<sup>9)</sup> 사회에 발을 내딛기 전에 갖게 된 최초의 인상(early impressions)은 세계를 인식하고 평가하는 자연스런 관점(natural view)을 구성하며, 이후의 모든 경험은 이러한 관점에 입각해서 의미를 얻게 된다.<sup>10)</sup> 인생에서 이 민감한 시기(impressionable years)에 일어나는 학습은 하나의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고, 이에 기초해서 이후의 경험들은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변증법적 과정으로, 만하임은 ‘경험의 성층화(stratification of experience; Erlebnisschichtung)’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논리는 세대를 개념화하고 이해하는 일반적인 관점으로 자리 잡았고, 이후의 모든 세대연구는 만하임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발달심리학에서도 더 넓은 사회로 진출하기 전인 청소년기를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라고 지칭한다. 언어 능력은 물론이고 정치적 인식과 비판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기반이 이러한 결정적 시기에 만들어진다.<sup>11)</sup> 출생시점을 공유하는 집단이 세대로 자리 잡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민감한 시기를 함께 겪었다는 동질성에서 유래한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 무엇을 함께 보고 느꼈느냐가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 2. ‘민감한 시기’와 정치사회화

사람은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인식과 정체성을 전수받고 학습하게 된다. 세대 정체성도 정치사회화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세대가 단지 출생 시기가 비슷하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고 정체성을 공유하는 집단이라고 할 때는 정치사회화(political socialization)가 이루어지는 시점(時點)에

9) Mannheim, Karl, op. cit; Sears, David O. and Nicholas A. Valentino, "Politics Matters: Political Events as Catalysts for Preadult Socializ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1, No. 1(1997), pp. 45-65.

10) Mannheim, Karl, *Ibid*, p. 298.

11) Braungart, Richard G., and Margaret M. Braungart, "Life Course and Generational Politics,"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12(1986), pp. 205-231.

대한 가정이 선행한다. 그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미성년에서 성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이다. ‘민감한 시기(impressionable years)’에는 겪고 보고 들은 사건이나 사태에 쉽게 영향 받고, 격렬한 정서적 동요가 일어난다. 이때 형성된 태도는 지속성을 갖고 유지되며, 웬만해서는 변하기 어렵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생애주기 가운데, 이 시기만큼 외부환경이나 자극에 대한 민감성 혹은 반응성(susceptibility)이 높을 때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험적으로 세대를 나눌 때 이 시기에 해당 세대가 대면했던 시대상이나 중대한 사건이 기준점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사회화가 생애주기상 어느 시점에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이 경합해 왔다. 크게 나누어 두 대척점은 지속성 가설과 평생 개방성 가설이라 할 수 있다. 지속성(persistence) 가설은 어린 시절 한번 형성된 태도와 정체성은 외부자극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된다는 것이다.<sup>12)</sup> ‘민감한 시기’ 혹은 ‘결정적 시기’ 이론도 크게 봐서 지속성 가설에 포함된다. 그것이 유소년기이든 청소년기이든, 혹은 성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이든 한번 각인된 태도는 변화를 추동하는 힘에 저항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평생 개방성(Life-long openness) 가설은 정치적 태도가 모든 연령에 걸쳐 변화 혹은 유지될 확률이 같다고 주장한다.<sup>13)</sup> 이에 따르면, 젊음이 늙었는가 하는 연령 자체는 태도 변화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이 없다. 말하자면, 어느 때든 경험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영향 받고 의식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언제나 외부 정보와 자극에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생애주기 효과(Life-cycle effects) 가설이 있다. 나이 들에 따라 인생의 어떤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태도 변화가 동반한다는 것이다. 가령 처녀, 총각 혹은 학생일 때와 가정을 꾸리고 직장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태도가 나타나게 된다. ‘20대에 진보가

---

12) Sears, David O., "Life-Stage Effects on Attitude Change, Especially among the Elderly," ed. S. B. Kiesler, J. N. Morgan, and V. K. Oppenheimer, *Aging: Social Change*(New York: Academic Press, 1981), pp. 183-204; Sears, David O., "Whither Political Socialization Research: The Question of Persistence," O. Ichilov(eds.), *Political Socialization, Citizenship Education, and Democracy*(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1989), pp. 69-97.

13) Brim, Orville G. Jr. and Jerome Kagan, *Constancy and Change in Human Development*(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0).

아니면 가슴이 없는 것이고, 40대에도 진보라면 두뇌가 없는 것<sup>14)</sup>이라는 프랑스 속담은 이 가설에 해당한다.

만하임에 의해 정초된 '민감한 시기' 명제도 지속성 가설에 포함시킬 수 있다. 사회화를 겪는 시기가 성년 이전이며, 이렇게 형성된 태도가 지속되며 변화에 저항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하지만 유의할 점은 가족이나 친지와 같은 1차 집단을 통한 사회화와 동년배들과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사회화는 그 내용에서 충돌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발달심리학의 사회화 이론에서는 이 부분이 간과되고 있다. 사실 만하임이 말한 '민감한 시기'에 겪는 동요는 백지상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유소년부터 가족 안에서 전수된 인식이 사회에 눈을 뜨며 크게 요동치는 상황을 가리킬 수 있다.

### 3. 연령-기간-세대(APC) 효과

앞 장에서 소개한 정치사회화의 세 가지 가설은 코호트 분석의 세 가지 핵심적인 변수에 제각기 상응한다. 연령(age), 기간(period), 세대(cohort)가 그것이다.<sup>15)</sup> 연령효과는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발생하는 변화를 일컬으므로 생애주기 효과와 같은 의미이고, 기간효과는 해당 시기에 발생한 사건이나 사태로부터 받게 되는 영향을 말하므로 평생 개방성 가설과 관련된다. 마지막으로 한번 형성된 세대의식이 지속되다는 의미에서 세대변수는 지속성 가설에 해당한다.

다만 정치사회화와 코호트 접근의 차이점은, 위의 세 가설이 태도 학습(learning)의 시점에 대한 배타적인 가정을 하는 데 반해, 코호트 분석의 변수들은 양립 가능할 뿐 아니라 상호작용한다는 데 있다. 세대변수는 청소년기나 성년 초기의 세대경험이 갖는 규정력에 주목하지만, 연령이 높아지면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태도 변화(연령효과)도 있을 수 있다. 동시에 특정 시기에 대단한 사건이나 변동이 몰아닥친다면, 어떠한 세대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영향은 같은 세대 안에서도

---

14) 이 경우는 여러 형태로 구전되었고, 윈스턴 처칠이나 칼 포퍼의 말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15) 세 가지 효과에 대한 개관 및 최신 방법에 대한 소개는 다음을 참조할 것. Yang, Yang, and Kenneth C. Land, *Age-Period-Cohort Analysis: New Models, Methods, and Empirical Applications*(New York: CRC Press, 2013).

각자가 처한 가족구성, 계급, 성별이나 지연·학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복잡한 다이내믹스를 감안하면, 연령-기간-세대를 통합하는 설명틀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가령 지속성 가설이 옳다 하더라도 다른 조건이 같다면(ceteris paribus) 그렇다는 것이지, 중장년이더라도 굉장한 급변을 맞게 되면 재사회화 과정을 밟지 않을 수 없다.

### III. 실제 세대와 집합기억

#### 1. 정치세대와 집합기억

슈만과 스콧은 만하임의 세대 형성이론을 집합기억의 관점에서 재조명하였다. 여기서 ‘집합기억(collective memory)’이란 프랑스 사회학자 알박스(M. Halbwachs)에게서 가져온 것으로, 같은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개인들이 간직한 공통의 기억을 말한다. 기억이 집합적인 이유는 모든 기억은 불가피하게 선택적이며(selective), 그러한 선택은 어떤 총체(totality)를 구성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이다. 총체가 만들어지는 기준은 기억을 공유하는 귀속집단이 된다. 그러므로 집단적으로 선택되어 총체를 이룬 기억만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sup>16)</sup> 그것은 단순한 역사적인 기억과는 달리 개인적으로 직접 경험한 자전적인 기억(autobiographical memory)이다. 실제로 역사적 사실이었느냐와는 별도로 그것이 자전적 기억으로 자리 잡아야만 집합기억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직접성’, 그리고 같은 세대로서 겪은 ‘유사성’이 결합하여 세대적 기억이 만들어진다. 즉, 각자의 출생 코호트에 따라 세대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과거(shared past)에 대한 기억이 있다는 것이다.<sup>17)</sup> 집합기억의 단초는 만하임에게서도 발견된다. 앞서 강조했듯이, 같은 때에 태어났다는 사실은 세대위치(generation location)만 제공할 뿐이고, 그것이 실제 세대(generation as actuality)로 구성되기 위해서는 지적·사회적 징후에 노출되어 결속감

---

16) Halbwachs, trans. Lewis A. Coser, Maurice, *On Collective Memory*(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17) Schuman, Howard, and Jacqueline Scott, "Generations and Collective Memo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 No. 3(1989), p. 361.



이 형성되어야 한다. 인식 내용(mental data)이 사회학적으로 의미 있는 이유는 내용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이 각 개인들에게 공유되어 하나의 집단으로 만드는 역할에 있다.<sup>18)</sup> 이러한 인식 내용은 전술한 대로 '민감한 시기'에 정초된다.

만하임과 알박스의 이론을 결합하면, 민감한 시기에 처음 대면한 중대한 사건은 이들 세대에게는 집합기억으로 남아 사회상을 해석하는 틀로 작용한다. 반면, 성년에는 똑같은 사건도 이미 형성된 인식에 덧입혀지게 되므로, 공통의 집합기억으로 전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세대마다 집합기억으로 간직하는 사건은 다르고, 그 사건은 그 세대가 미성년 말기, 성년 초기에 일어났을 것이라는 이론적 예측이 가능하다. 슈만과 스콧은 이러한 가설을 경험적 자료를 통해 검증하였고, 후속 연구를 통해서도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sup>19)</sup>

개인의 자전적 기억은 실험심리학 분야의 오랜 연구 주제이기도 한데, '회고 절정(reminiscence bump)'이라는 개념을 통해 위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를 제시해왔다. 피험자에게 전 생애에 대한 기억을 회고하게 하였을 때, 청소년기에서 성년에 접어드는 시기의 기억을 가장 많이 회고한다.<sup>20)</sup> 횡축을 연령대로 하고 각 사건의 회상 빈도를 시각화할 때, 청소년기-성년 초기에 해당 사건을 경험한 연령집단에서 빈도를 표현하는 꺾은선 그래프가 솟아오르는(bump) 양상을 보이게 된다.<sup>21)</sup>

여기서 '개인적'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순전히 사적인 경험뿐 아니라 공적인 사건에 대한 기억도 포함한다. 어떤 사건이나 경험을 했던 인생의 시점, 그 당시에 자신의 상태나 상황, 그리고 거기서 기억나는 이미지나

---

18) Mannheim, Karl, *op. cit.*, p. 304.

19) Schuman, Howard, and Willard L. Rodgers, "Cohorts, Chronology, and Collective Memories," *Public Opinion Quarterly*, Vol. 68, No. 2(2004), pp. 217-254; Schuman, Howard, and Amy Corning, "Generational Memory and the Critical Period: Evidence for National and World Events," *Public Opinion Quarterly*, Vol. 76, No. 1(2012), pp. 1-31.

20) Conway, Martin A., "The Inventory of Experience: Memory and Identity," James W. Pennebaker, Dario Paez, and Bernard Rimé(eds.), *Collective Memory of Political Events: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New York: Psychology Press. 1997), pp. 21-46; Holmes, Alison and Martin A. Conway, "Generation Identity and the Reminiscence Bump: Memory for Public and Private Events,"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Vol. 6, Issue 1(1999), pp. 21-34.

21) 뒤에 나오는 그림2를 참조할 것.

냄새와 같은 지각적 요소들이 어우러져 기억을 배태한다.<sup>22)</sup> 이러한 회고 절정도 개인의 생애주기에서 특정 시기에 집중되며, 그것이 민감한 시기와 대체로 일치한다는 것이다.<sup>23)</sup> 여러 기억 중에서도 지각적으로 명료하게 남아서 ‘섬광과 같이 강렬한 기억(flashbulb memory)’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의 기억으로 보존된다. 미국사회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케네디 대통령 피격사건이다.<sup>24)</sup> 정서적으로 예민한 청소년기에 이러한 사건을 경험한 세대는 강렬한 집합기억을 형성하게 된다.

## 2. 집합기억은 얼마나 집합적인가

만하임이나 알박스와 같은 사회학의 거장으로부터 출발한 세대형성과 집합의식의 연구들은 심리학 분야에서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폭넓은 지지를 얻었다. 하지만 정작 사회학계에서는 이러한 입론에 대해 적지 않은 저항감을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올릭은 알박스가 유기체론에 가까운 사회 개념을 정초한 뒤르캬의 제자라는 사실을 환기시킨다. 이들에게 사회나 집단은 개체 속성의 단순한 집합에 그치지 않고, 그 자체의 독자적 생명을 지닌 존재이다. 알박스가 ‘기억의 사회적 구성틀(social frame of memory)’이라고 할 때도 이러한 의미이다.<sup>25)</sup> 그러므로 앞선 논의들은 집합의식의 집합적(collective) 차원을 사상(捨象)하고, 개인주의적(individualistic) 이해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한다. 말하자면, 진정한 의미의 집합기억이 아니라 취합된 기억(collected memory)이라는 것이다.<sup>26)</sup> 과거의 기억이라는 것도 현재의 목적을 위해 재창조되며, 기억을 전취하려는 투쟁의 소산이다. 시대 상황에 따라 같은 사건의 의미도 명암(明暗)과 청탁(淸濁)을 오가기 마련이다. 가령 슈워츠는 링컨의 이미지가 여러 전쟁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분석한다. 19세기

22) Conway, Martin A., *op. cit.*, p. 23.

23) Holmes, Alison and Martin A. Conway, *op. cit.*; Rubin, David C., et al., “Things Learned in Early Adulthood Are Remembered Best,” *Memory & Cognition*, Vol. 26, Issue 1(1998), pp. 3-19.

24) Brown, Roger and James Kulik, “Flashbulb Memories,” *Cognition*, Vol. 5(1977), pp. 73-99.

25) Halbwachs, *op. cit.*

26) Olick, Jeffrey K., “Collective Memory: The Two Cultures,” *Sociological Theory*, Vol. 17, No. 3(1999), pp. 333-348.

말에 태어난 세대는 링컨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간직하고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들을 겨냥해서 국론통합의 아이콘으로 링컨이 적극 활용된 바 있다. 반면, 한국전쟁이나 베트남전에서는 오히려 분열상을 부각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이다.<sup>27)</sup>

전상진도 청소년기의 경험으로부터 실제 세대가 저절로 생긴다는 가설에 회의적이다.<sup>28)</sup> 중요한 것은 어떤 사건을 기억하는가 하는 사실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현실에서 경험하고 가공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공은 각 세대가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세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통시적으로 수행된다고 주장한다.

최근 심리학 분야의 경험연구에서도 주목할 만한 발견이 있었다. 브라운과 그의 동료들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전쟁이나 테러, 심각한 자연 재해를 겪은 유럽, 북미, 동유럽 국가를 교차해서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sup>29)</sup> 실험과정에서 여러 연상작용을 자극하였지만, 정치적·공적 사건에 대한 기억을 떠올린 경우는 매우 소수에 불과했다. 뉴욕 시민들조차 9·11 테러사건을 환기해내지 못하였고, 예외적으로 보스니아인들이 내전을 회고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역사적 중요성 그 자체는 기억을 위한 필요조건에 불과하며, 살아 있는 역사(living-in-history)로서 기억되려면 커다란 격변이거나 생활양식에 급격한 전환을 동반하는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역사적 사건이 시간을 버텨내면서 집단정체성을 규정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하려면, 정서적으로 큰 동요를 일으키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정도의 충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sup>30)</sup> 이러한 역동성을 감안하면, 집합기억은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것이고, 세대 구성원 모두에게 전일적으

---

27) Schwartz, Barry, "Memory As a Cultural System: Abraham Lincoln in World War II,"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1, No. 5(1996), pp. 908-927.

28) 전상진, 「세대 개념의 과잉, 세대연구의 빈곤: 세대연구 방법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학』 38집 5호(2004), 31-52쪽.

29) Brown, Norman R., Peter J. Lee, Mirna Krslak, Frederick G. Conrad, Tia G. B. Hansen, Jelena Havelka, and John R. Reddon, "Living in History: How War, Terrorism, and Natural Disaster Affect the Organization of Autobiographical Memory," *Psychological Science*, Vol. 20, No. 4(2009), pp. 399-405.

30) Schuman, Howard, and Willard Rodgers, *op. cit.*; Corning, Amy, Vldas Gaidys, and Howard Schuman, "Transformative Events and Generational Memory: A Case Study Over Time in Lithuania," *Sociological Forum*, Vol. 28, No. 2(2013), pp. 373-394.

로 유지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기억의 구성충위가 세대 내에서 분기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 IV. 한국의 정치세대와 기억의 정치

### 1. 정치변동과 세대형성

집합기억과 세대형성의 문제는 서구의 선진 민주국가를 중심으로 연구되어왔다. 그 나라마다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적어도 민주주의 체제 안정성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왔다. 이에 반해 탈식민, 근대화, 민주화 이행과 같은 격변을 겪은 비서구 세계를 사례로 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테슬러와 그의 동료들은 이런 문제를 지적하며, 알제리를 사례로 세대별 기억의 성층화를 분석하였다. 그들이 보기에 천지개벽할 사건이라면 연령에 상관없이 새로운 학습을 요구받을 수밖에 없다. 세대마다 민감한 시기에 접하는 사건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질적으로 동등하게 취급해서도 안 된다. 상당한 기간 동안 확연하고 지속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면 집합기억을 형성할 수 없다. 가령 미국인들에게 베트남전은 해당 세대에게 지속적으로 깊게 각인되지만, 정부 예산 배분 문제와 같은 사건은 아무리 중대해도 지속적으로 기억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미 각인된 기억조차도 체제의 근본적인 변동이나 불안정 상황 속에서는 재구성되거나 해체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sup>31)</sup> 이런 측면에서 제3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극도의 불안정을 겪어왔고, 안정적인 세대형성의 경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만하임 역시 모든 연령집단이 세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별다른 격변 없이 지속상태를 특징으로 하는 시대(normal times)에는 세대 간 격차는 줄어든다. 중대한 사건을 함께 겪지 못한 출생집단은 순전히 같은 연령대라는 생물학적 차별성과 친화성만 남을 뿐 실제 세대가 되지 못한다. 더불어 전국적으로 대단한 소요가 일어나더라도

---

31) Tessler, Mark, Carrie Konold, and Megan Rief, "Political Generations in Developing Countries: Evidence and Insights from Algeria," *Public Opinion Quarterly*, Vol. 68, No. 2(2004), pp. 184-216.

도시의 지식인층과 산재하는 촌부들이 나이가 같다고 해서 인식까지 같다고 볼 수는 없다.<sup>32)</sup>

특기할 만한 사실은 경험의 성층화가 일어나더라도 평가적 차원에서는 한 방향으로 쏠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해당 사건에 대해 정당화하고 강화하고자 하는 긍정의 인식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것을 부정하고 저항하려는 인식도 동시에 가능하다. 이를 두고 세대단위(generation unit)라고 불렀다.<sup>33)</sup> 같은 사건과 경험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실제 세대지만, 구체적인 사상과 실천으로 전환하는 세대단위는 한 방향이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분기할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당시의 학생 그룹이 낭만적 보수주의(romantic-conservatism)와 자유합리주의(liberal-rationalism)로 나뉘었다고 서술한다. 만하임이 살았던 시대가 지금과 같이 서구세계가 안정을 구가하던 때가 아닌 점을 감안하면, 한국과 같은 신생 민주국가의 현실과 상응하는 바가 크다고 여겨진다.

## 2. 한국의 정치세대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정치세대를 나누어온 기준을 살펴보자. 여기서 ‘정치세대’라 특정한 이유는 현대 정치사의 중요한 사건을 계기 삼아 각각의 세대들이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정치세대를 사회문화적 세대와 구별하는 것은 정치라는 영역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사회나 문화는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변하면서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이혼과 재혼이 터부시되던 풍조가 이제는 많이 바뀌었고, 동성애자나 타 인종에 대한 관용도 늘어났다. 하지만 정치영역은 시민이 변하는 동안, 정부와 정당도 따라서 변하는 역동성을 갖고 있다. 스티imson도 가족, 성(性), 인종과 같은 사회학의 태도변수들은 문화가 바뀌면서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변해왔지만, 정치학의 변수들은 그러한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가 보기에 정치체(polity)와 사회(society)의 결정적인 차이는 정치의 장에서는 정부와 같은 행위자가 ‘반응한다(respond)’는데 있다.<sup>34)</sup> 이런 점에서 정치세대를 구획하는 주요 사건에 대한 기억과

32) Mannheim, Karl, *op. cit.*, pp. 302-303, p. 309.

33) *Ibid.*, p. 298.

34) Stimson, James A., *Tides of consent: How public opinion shapes American politics*

평가는 늘 재구성되는 압력에 노출된다.

기존 연구를 보면 학자마다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다르다. 현대 정치사를 살아온 세대에 대해 크게 셋 정도로 나누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일곱 세대로 나누는 경우도 있다. 물론 최근 연구로 올수록 더 많은 출생집단이 발생하면서 세대 수를 더 많이 두는 경향이 나타난다.

표1은 정치세대를 나눈 주요 연구의 세대구획을 명칭과 생년을 따라 정리한 것이다. 언뜻 보기에 모두가 제각각인 것 같지만, 세대구획의 기준은 공통적이다. 주요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때에 청소년기와 성년 초기를 보냈는가를 주목한다. 그렇다면 주요한 역사적 사건을 무엇으로 보느냐가 관건인데, 한국전쟁, 산업화, 민주화는 거의 대부분의 구분에서 빠지지 않는다. 여기에 식민경험을 넣기도 하고 유신을 넣기도 하며, 최근 세대의 경우 탈냉전, 정보화, IMF, 월드컵, 촛불 등 다양한 정치적 사건을 통해 세대를 구획하고 있다.

이러한 세대구분은 어떤 객관적 기준이라기보다는 연구자마다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반영할 뿐이다. 사회변동이 매우 빠른 한국의 실정을 감안하면 민감한 시기마다 경험한 사건이 많을 것이고, 세대를 잘게 쪼개야 할 수도 있다. 반면, 사건의 중대성을 등가로 볼 수도 없을 것이다. 가령 전쟁이나 공황과 같은 사태에서 초래되는 기억을 월드컵의 흥분과 같은 반열에 놓을 수는 없다. 또한 중대한 사건을 경험한 세대로 함께 묶이더라도 해당 기간 내에서 동질적으로 기억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가령 민주화 이행을 기준으로 당시 15세에서 25세였던 사람들을 하나의 코호트로 묶는다고 할 때, 대학 시절 거리로 나가 최루탄 연기를 마셨던 기억이 생생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갓 고등학교에 들어가 풍문으로만 전해 들은 사람도 있다. 나이가 같더라도 도시의 직장인이 보았던 광경과 시골마을에서 라디오로나 들은 기억을 같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이 세대 내에서 공유하고 있는 과거를 단정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잠재되어 있다. 이어지는 경험분석에서는 과연 세대마다 이들 주요 사건에 대한 집합적 기억이 공유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p. 36.

표1-한국의 정치세대 분류

정진민(1992, 1994)	정진민·황아란(1999)	조중빈(2003)	어수영(2006)
전전세대 -1950	전전세대 -1950	한국전쟁세대 -1942	한국전쟁세대 -1939
민주세대 1950-1961	민주세대 1950-1961	전후세대 1943-1953	산업화 세대 1940-1949
신세대 1962-	신세대 1 1962-1970	유신세대 1954-1961	민주화·유신투쟁 세대 1950-1959
	신세대 2 1970-	민주화·노동운동세대 1962-1969	386세대 1960-1969
		탈냉전세대 1970-1978	민주노동운동세대 1970-1979
		탈정치세대 1979-	e-세대 1980-
황아란(2009)	Cho&Eum(2012)	윤상철(2009)	박명호(2009)
산업화/전쟁세대 -1957	산업화 세대 -1959	전전세대 -1950	한국전쟁세대 -1939
민주화 투쟁세대 1958-1966	민주화 세대 1961-1969	유신세대 1951-1960	전후 산업화 세대 1940-1949
민주화 성취세대 1967-1971	디지털 세대 1970-	386세대 1961-1970	유신세대 1950-1959
신세대 1972-		X세대 1971-1980	386 세대 1960-1969
		IMF·춧불 세대 1981-1990	탈냉전 민주노동운동 세대 1970-1979
			월드컵 세대 1980-1989
박재홍(2009)	박재홍(2009)(소분류)	이갑윤(2008)	노환희 외(2013)
식민지·전쟁체험 세대 -1940	식민지·전쟁체험 세대 -1940	식민지세대 1930-1939	한국전쟁세대 -1942
산업화·민주화 세대 1941-1970	탈식민/4·19/6·3 세대 1941-1950	해방세대 1940-1949	전후 산업화 세대 1942-1951
탈냉전·정보화 세대 1971-2005	베이비붐·유신 세대 1951-1960	1공세대 1950-1959	유신세대 1952-1959
	386세대, 민주화 세대 1961-1970	3공세대 1960-1969	386세대 1960-1969
	신세대, IMF 세대 1971-1980	유신세대 1970-1979	IMF 세대 1970-1978
	W·광장, 88만 원 세대 1981-1990	386세대 1980-1989	월드컵 세대 1979-1987
	웹2.0세대, 2.0세대 1991-2005		춧불세대 1988-1993

## V. 경험적 분석

### 1. 중대사건과 정치세대

우선 2004년 조사를 통해 기억이 집합적인 세대경험으로 남아 있는지를 살펴보자. 이어지는 분석은 대체로 슈만과 스콧의 방법과 절차를 따르고 있다.<sup>35)</sup> 문항은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사건과 '직접 경험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무엇이었는지를 묻고 있다. 후자가 집합기억의 개념에 부합한다. 슈만과 스콧의 조사에서는 '가장 중요한(most important)'이라고 프레임했지만, 우리의 자료에서는 '가장 충격적인'이다. 기억연구에서 섬광과 같은 기억(flashbulb memory)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우리의 조사가 더 유리한 지표라고 볼 수 있다.

표2를 보면 5%의 기준을 넘는 응답들은 민족에게 큰 사건과 직접 경험한 사건이 대체로 공통적이다. 하지만 그 순위는 상당히 다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오래된 과거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므로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가령 한국전쟁만큼 현대사에 중요한 사건이 없지만, 그것을 직접 경험한 세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므로 정치체 전체로서 중요한 사건과 직접 경험한 중요한 사건 간에 괴리가 있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런 사실은 다음의 그림1을 통해서 잘 나타난다. 이 상자그림(box plot)은 5%를 넘는 응답에 대해서만 각 항목을 선택한 응답자들의 생년분포(중축)를 나타낸다. 상자 안의 가운데 선은 중위수(median)를 나타내므로, 각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생년의 중위수이다. 상자의 위아래는 각각 응답자분포의 상·하위 사분위(quartile)를 가리킨다. 횡으로 좌에서 우로 갈수록 최근의 사건이고, 종으로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최근의 코호트이므로, 이론적으로는 상자의 위치가 좌하단에서 우상단으로 향하는 대각선 패턴으로 예상할 수 있다.

---

35) Schuman and Scott, *op. cit.*



표2-집합기억(2004)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사건	빈도수	비율(%)	누적 비율
* 6·25 전쟁(1950)	466	46,18	46,18
* 8·15 광복(1945)	94	9,32	55,5
* IMF 외환위기(1997)	90	8,92	64,42
* 5·18 광주 민주화 운동(1980)	80	7,93	72,35
* 10·26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1979)	66	6,54	78,89
* 5·16 쿠데타(1961)	54	5,35	84,24
* 월드컵 4강 진출(2002)	47	4,66	88,9
88 올림픽(1988)	39	3,87	92,77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2004)	25	2,48	95,24
4·19 혁명(1960)	23	2,28	97,52
6·15 남북 정상회담(2000)	8	0,79	98,32
87년 6월 민주화 운동(1987)	7	0,69	99,01
10월 유신(1972)	5	0,5	99,5
김일성 사망(1994)	3	0,3	99,8
기타	2	0,2	100
직접 경험한 가장 충격적 사건	빈도수	비율(%)	누적 비율
* IMF 외환위기(1997)	291	28,84	28,84
* 월드컵 4강 진출(2002)	192	19,03	47,87
*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2004)	151	14,97	62,83
* 5·18 광주 민주화 운동(1980)	105	10,41	73,24
* 10·26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1979)	81	8,03	81,27
* 88 올림픽(1988)	54	5,35	86,62
* 6·25 전쟁(1950)	46	4,56	91,18
김일성 사망(1994)	31	3,07	94,25
5·16 쿠데타(1961)	15	1,49	95,74
87년 6월 민주화 운동(1987)	10	0,99	96,73
6·15 남북 정상회담(2000)	9	0,89	97,62
기타	9	0,89	98,51
4·19 혁명(1960)	7	0,69	99,21
10월 유신(1972)	5	0,5	99,7
8·15 광복(1945)	3	0,3	100

\* 표시는 반올림해서 5% 이상인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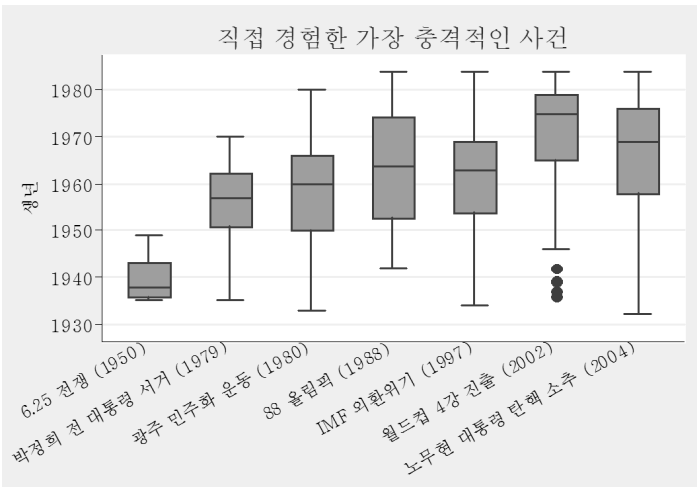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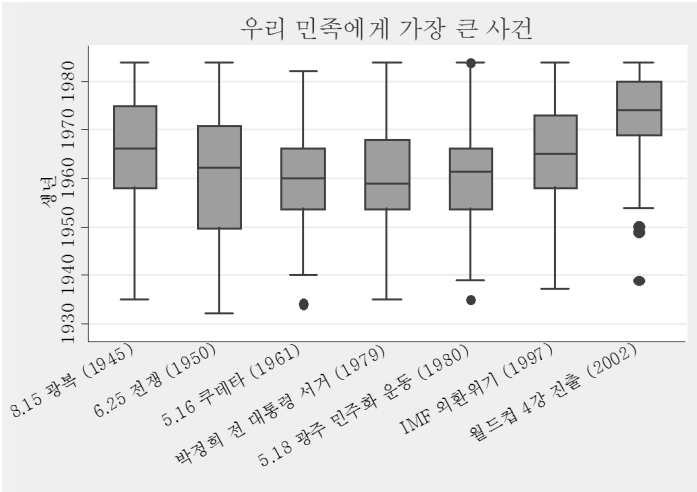


그림1-기억하는 중요 사건의 생년분포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사건에 대해서는 세대 간 차이가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직접 경험한 사건인 경우에는 이론적 예상에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다. 세대마다 청소년기 혹은 청년기에 겪었던 사건을 지목하는 패턴이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이 두 문항 모두에서 1% 미만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앞서 보았듯이 대부분의 연구들이 민주화 운동을 기점으로 세대를 나누고 있으며, 특히 주목할 만한 세대로서 '386'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비쳐보면 다소 의아한 결과이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성싶다. 하나는 이 조사가 2004년에 이루어졌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가 쟁점이었다는 사실과 관련된다.<sup>36)</sup> 직접 경험한 충격적 사건으로 15%가량이 이 사건을 지목했다. 많은 시민이 국회의 탄핵 소추를 형식적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던 만큼, 민주화의 중요도를 이것으로 치환했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민주화는 이미 성취되어 향유하고 있는 환경이므로, 어떤 충격적인 사건으로는 기억되지 않을 수 있다. 과거의 일이라도 현재 계속 불러내어져야 기억으로 남게 된다.<sup>37)</sup> 민주주의는 이미 공공재로서 그것과 경합하는 어떤 대안이 없다. 많은 논평가들이 ‘민주 vs. 반민주’ 정치 구도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지적과도 일맥상통한다. 반면, IMF 외환위기가 전 연령대에 걸쳐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외환위기를 기준으로 우리 경제구조가 크게 바뀌었는데, 특히 구직난과 비정규직의 확대, 정년축소 등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기에 기억으로서 존재감을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미성년 딸기, 성년 초기에 각인된 사건이 세대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만하임의 이론은 경험적으로도 입증되는 것인가? 표3은 ‘직접 경험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평균 생년과 그 사건이 일어난 시점 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a-b’가 의미하는 것은 해당 사건이 일어날 당시의 만 나이이다. 20대 초·중반이 있는가 하면, 30대

표3-중요한 기억의 발생시점

직접 경험한 가장 충격적인 사건(a)	평균 생년(b)	표본수	a-b
6·25 전쟁(1950)	1939	46	11
10·26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1979)	1956	81	23
5·18 광주 민주화 운동(1980)	1958	105	22
88 올림픽(1988)	1963	54	25
IMF 외환위기(1997)	1962	291	35
월드컵 4강 진출(2002)	1971	192	31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2004)	1967	151	37

36) 탄핵이 많이 선택된 것은 최근효과(recency effect)도 반영되었을 것이다. '민감한 시기' 가설은 최초의 기억이 갖는 초두효과(primacy effect)를 말하는 것인데, 반대로 가장 최근의 경험도 일정 기간은 쉽게 환기된다. 슈만과 스콧의 조사는 1985년에 이루어졌는데, 최근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몇 달씩 끊어서(4, 5, 8, 9월) 조사했고, 이 기간 내내 일정한 규모의 응답을 유지하지 못한 사건은 배제했다(Schuman and Scott, *op. cit.*, 1989, p. 362). 아쉽게도 우리의 조사에서는 이런 통제가 가능하지 않다. 최근효과와 초두효과에 대해서는 Green et al(2000)을 참고할 것.

37) Brown, Norman R et al., *op. cit.*

초·중반까지도 있다. 한국전쟁의 경우에는 11세이다. 민감한 시기 가설이 일부에서만 충족되고 있는 것이다.

‘회고 절정(reminscence bump)’을 보기 위해서는 주요 사건이 기억되는 빈도수를 생애주기에 따라 시각화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생년(birth year)을 10년 단위로 나누고 이에 맞추어 주요 사건을 기억하는 빈도수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론적 예상으로는 최근의 사건일수록 그래프의 가장 높게 솟구치는 지점(회고절정)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태어난 코호트에게서 나타나야 한다. 그림2에서 보듯이 생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전쟁부터 가장 최근의 노 대통령 탄핵까지 솟구치는 지점(bump)이 조금씩 뒤로 움직이는 추세를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직접 경험의 영향력을 방증한다. 다만 문제는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며, 사건에 따라 ‘민감한 시기’를 벗어나는 결과도 있다. 대부분의 사건은 시간편차는 있지만,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최근일수록 절정(bump)도 상대적으로 최근의 출생 코호트에 나타나고 있다. 유일한 예외가 IMF 외환위기이다. 당시를 충격적인 경험으로 기억하는 숫자가 압도적으로 1위인 데다가, 1961-1970년 출생 코호트에서 절정을 찍는다. 만 나이로 치면 1997년 당시 27세에서 36세에 해당하는 세대이다. 이때는 생애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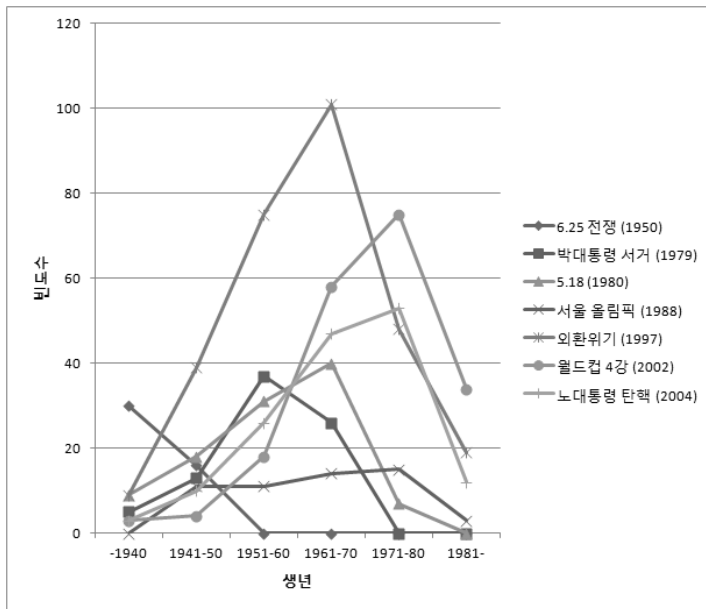


그림2-주요 사건에 대한 회고절정

상 ‘민감한 시기’를 이미 벗어난 시기이다. 다른 사건들은 과거가 되어 회고의 대상으로 머무는 데 반해, 외환위기는 우리의 경제구조를 바꾸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전 세대에 걸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사회에 눈뜨는 민감한 시기보다 이미 사회에 진출한 시기에 더 많은 기억으로 남았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기존의 경제구조에서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던 삶의 궤적이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위기를 맞았다. 이로 인해 이러한 회고절정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 대공황의 세대경험을 추적한 엘더의 연구도 이러한 해석의 맥락을 제공한다.<sup>38)</sup> 엘더는 장기에 걸친 추적연구를 통해 공황이 발발할 당시 상류층이나 하층계급의 아이들보다 중산층의 아이들에게 보다 충격적인 경험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대공황의 여파는 중산층에게 치명적이었다. 어차피 못 사는 아이들에게 닥친 곤경은 크게 새로울 것이 없지만, 중산층 가계의 아이들은 인생을 바꾼 경험으로 기억하는 것이다.

## 2. 주요 사건과 그에 대한 평가

이번에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시행한 「통일의식조사」를 사용해 주요 사건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자. 역사적 사실 중에서 선택적으로 집합기억이 형성되는 과정은 평가적 의미가 전제되어 있다. 기억을 선택할 때, 선택된 것들이 하나의 총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 기억에 대한 호불호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sup>39)</sup> 우리의 관심과 관련하여 4·19, 5·16, 10월 유신,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2000년 남북정상회담 등에 대한 평가를 묻고 있다. ‘매우 부정적’에서 ‘매우 긍정적’까지 4점 척도도 동일하게 유지했다.

앞 장에서 선택된 사건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지만, 현대사의 주요 사건에 대해 세대별 평가가 어떠한가를 보기에선 손색이 없다. 세대의 집합기억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유의미한 정치 행태의 차이로 나타나려면, 그 사건에 대한 평가에서 세대 간 차이가 나타나야 한다.

---

38) Elder, Jr. Glen H., *Children of the Great Depression: social change in life experienc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4).

39) Halbwachs, *op. cit.*, p. 53.

가령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자유나 민주와 같은 가치보다 체제 안정에 가치를 더 부여하며, 이로 인해 시민항쟁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하고, 군부의 동원에 대해서는 후하게 평가할 수도 있다. 이런 매개를 통해 세대별 정치 행태의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는 게 합리적이다.

2007년부터 2011년에 걸친 해당 사건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면 그림3과 같다. 횡축은 조사연도이고, 종축은 맨 아래의 '매우 부정적'에서 맨 위의 '매우 긍정적'까지의 응답분포이다. 횡축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일부 변화는 있지만, 각 사건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평가의 분포는 비슷하다. 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평가에 극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세대별로 이러한 평가의 분포는 다르게 나타날까? 그림4는 2007년과 2011년의 자료를 합해서(pooling) 세대별 평가의 분포(kernel density)를 나누어서 보여준다.<sup>40)</sup> 각각의 선은 아래 범례에 나와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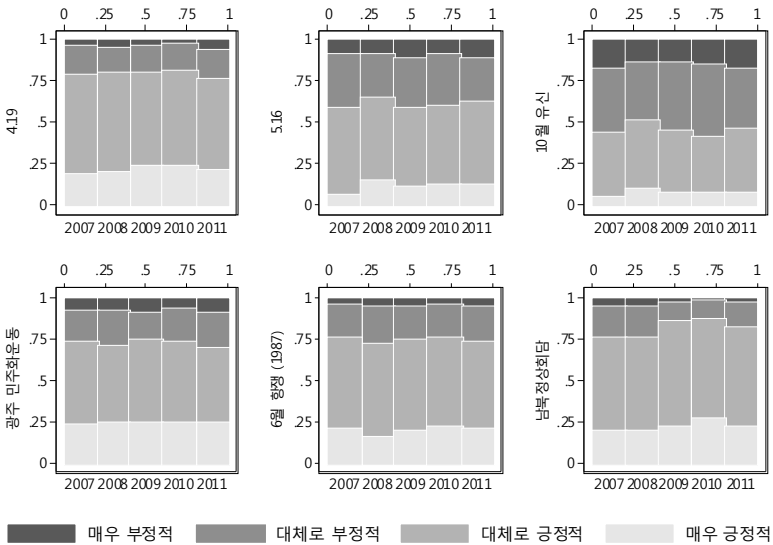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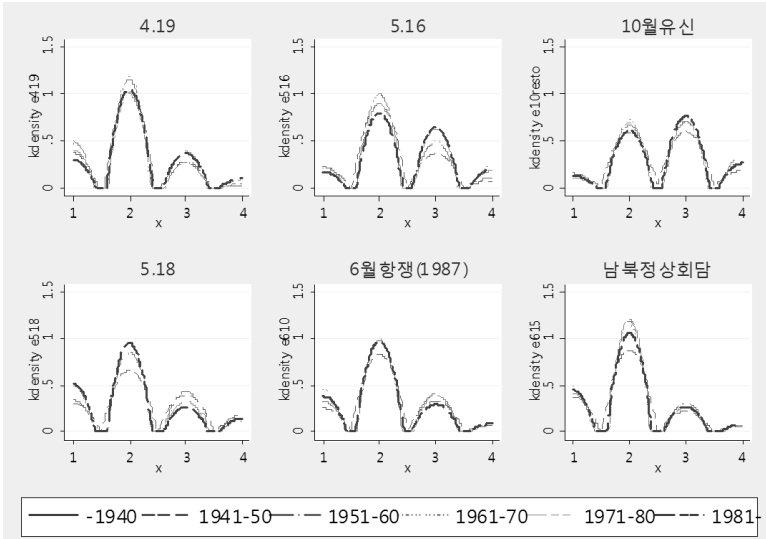


그림3-주요 사건에 대한 평가(2007-2011)

40) 2008년과 2009년 자료에서는 실제 연령변수가 없고 20대, 30대와 같이 연령대만 묻고 있어서, 생년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가 없다. 연령 대신 연령대를 물어보는 것은 한국의 조사에서 흔하게 있는 일인데, 코호트 연구에는 큰 장애가 아닐 수 없다. 정보의 손실은 물론이고, 조사 간 시간차(interval)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여러 조사를 함께 분석할 수 없는 것이다. 가령 5년 전 조사에서 20대였으면, 오늘 시점의 조사에서는 20대인지 30대인지 알 수 없고, 이로 인해 두 조사를 통해 세대 행태의 추세를 볼 수 없게 된다.



※ 1. 매우 긍정적, 2. 대체로 긍정적, 3. 대체로 부정적, 4. 매우 부정적

그림4-세대별 주요 사건에 대한 평가(2007+2011)

각각의 출생 코호트를 의미하고, 개별 그림의 횡축은 ‘매우 긍정적’을 의미하는 1에서 ‘매우 부정적’을 의미하는 4까지를 가리킨다. 세대 간 평가의 격차가 크다면, 선들이 흩어지는 모양새여야 할 것이다. 육안으로 보면, 대체로 긍정-부정의 패턴은 세대 간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통계적으로는 4·19 항쟁과 5·16 쿠데타,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평가에서 코호트 간에 유의한(significant)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sup>41)</sup> 4·19와 5·16에 대해서는 나이 든 세대일수록 더 긍정적이고, 5·18에 대해서는 젊은 세대일수록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확인되지만, 세대 간 격차가 실질적으로(substantively) 그다지 크다고 볼 수는 없다. 대체로 비슷한 수준의 응답을 하고 있으며, 긍정-부정의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는 없다 386세대는 이 세대를 주도한 6월 항쟁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 가장 높고, ‘매우 부정적’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어 특기할 만하다(자세한 내용은 <부록>의 교차분석 표를 참고할 것).<sup>42)</sup> 하지만 전반적인 패턴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41) 세 사건에 대해서는 코호트 간에 평가가 같다는 영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0.001 이하이다.

42) 이 점을 지적해주신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드립니다.

기억의 직접성과 유사성을 통해서 세대마다 다른 집합기억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억도 고정불변이 아니라 현재의 맥락에서 끊임없이 구성되는 과정이다. 하물며 주요 사건에 대한 평가는 더더욱 현재적 조건에서 다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기억을 전유하고자 하는 투쟁이 진행 중이며, 세대균열을 따라 갈등이 있다면 평가의 극화도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알박스의 이론은 기억의 현재주의(presentism)라고 불리기도 한다.<sup>43)</sup>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많은 사안들은 역사 속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얻는다. 이로 인해 세대 간 평가의 차이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세대를 나누는 많은 사건이 사실상 역사적인 평가에서 여전히 갈등적인 것은 많지 않다. 이미 4·19나 5·18, 6·10 민주화 운동처럼 시민항쟁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보상과 기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보수진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나 학계에서 활발히 연구되는 노태우 시대 다시보기와 같은 작업의 성과에 따라 과거의 기억과 평가가 재구성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세대구획으로 삼는 주요 사건들은 이미 역사적 의미가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 VI. 맺음말

이제까지 우리는 집합기억의 관점에서 세대 문제를 조명하였다. 세대를 형성하는 미성년 말기, 성년 초기의 '민감한 시기'에 경험과 기억이 각인되어 유효하게 남아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더불어 세대마다 주요 사건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직접 경험한 사건에 대한 기억에서 세대 내 공통점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나타났다. 한국에서 세대연구의 주요 화두인 '386'세대를 주조한 민주화가 집합기억으로서는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반면, IMF 외환위기는 세대위치와 어긋나는 집합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

43) Coser, Lewis A., "Introduction," Halbwachs, Maurice, *On Collective Memory*(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pp. 1-34.



세대 간 집합기억의 차이와는 별도로 그것이 주요 사건에 대한 평가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일정한 세대 간 차이가 나타나지만 그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집합기억이 세대 정체성을 구성하려면, 기억되는 사건에 대한 평가도 세대 간 차이가 나타나야 마땅하다. 하지만 우리의 분석을 통해서서는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러한 발견을 종합하면, 한국 현대사에서 집합기억의 내용(content)이 세대경험으로 정확히 자리 잡고 있지 않을 뿐더러, 해당 기억에 대한 평가에서도 세대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가정되는 세대차이, 세대격차라는 것이 적어도 집합기억의 관점에서는 경험적으로 볼 때 강력하게 지지받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발견을 통해서 단정적으로 세대변수를 부정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우선 우리는 자료의 한계상 기억이나 평가의 강도(strength)까지 측정하지는 못하였다. 그렇게 보다 낫스 있는 지표를 통해 세대 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sup>44)</sup> 나아가 세대의 구성원 전체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각 세대의 엘리트 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만하임이 세대단위(generation unit)라고 부른 전위적 집단이 결국 세대현상을 이끌어 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세대의 주도적 인사들만 대상으로 연구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모두 향후 연구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더불어 세대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은 집합기억 이외에도 다른 행태적·태도적 변수가 있으므로 보다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우리의 발견이 세대차이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통념에 도전하는 것은 분명하다. 투표선택이나 이념성향에서 세대에 따라 극명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 저널리즘의 일반적 인식이다. 이에 따라 세대집단 간에는 기억과 태도에도 큰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우리의 분석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우선 지적되어야 할 것은 세대에 대한 많은 주장이 세대와 연령의 효과를 함께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보수화된다. 세대의 효과가 있다면, 이러한 고령화에 따른 일반적인 변화에 어긋나는 어떤 패턴이 세대 사이에 나타나야 한다. 최근의 경험적 연구를 통해 투표나 이념의 세대격차라고

44) 이 점을 지적해준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하는 것이 실제로는 연령의 효과라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sup>45)</sup> 가령 세대담론이 확대되는 계기였던 '386'세대의 경우에도 40대를 거쳐 50대에 이르면서 어김없이 보수적인 이념성향과 투표선택을 하고 있다. 이들 세대가 1987년 민주화 항쟁을 집합기억으로 강렬하게 공유하고 있지 않다는 우리의 발견과도 일맥상통한다. 물론 당시의 항쟁을 이끌었던 엘리트 집단 안에서는 강렬한 기억일 것임에 분명하지만, 세대집단 전체를 아우르는 '공유된 과거'는 아닌 것이다.

대개 고전(classic)은 여러 각도에서 읽힐 수 있다. 그런데도 어떠한 단순한 명제로 화석화되어 후대로 계승되는 것이 상례이다. 만하임과 알박스의 경우도 그런 면이 있다. 만하임은 모든 출생 코호트가 세대를 구성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같은 출생 코호트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질성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sup>46)</sup> 그런데도 후대의 연구들은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세대를 이루는 것으로 받아들여왔다. 알박스의 집합기억이라는 개념은 우선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전제로 한다. 소속집단 혹은 준거집단에 기초하여 기억을 선택적으로 재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알박스는 가족, 계급, 종교, 지역 등을 사례로 들고 있다. 슈만과 스콧의 연구는 세대도 그러한 준거집단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데<sup>47)</sup>, 모든 출생 코호트가 결정적인 시기(critical period)를 거치겠지만 그 시점에 결정적인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sup>48)</sup> 세대에 따라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보다 맥락적이고 뉘앙스 있는 연구가 추진되어야 한다. 한국은 짧은 기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으며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는 높다. 도시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부동산 시장의 영향으로 이주가 매우 잦다. 이런 조건이 청소년기 사회화와

45) 가장 최근의 연구동향과 경험분석에 대해서는 허석재, 『생애주기와 세대정치』,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4) 3편과 4편을 볼 것.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특정 선거에서 나타난 20대, 30대와 50대, 60대 간에 대조되는 투표선택을 놓고 '세대균열'로 간주하지만, 이것이 세대 간 차이인지, 연령 간 차이인지는 구별할 수 없다. 단일시점에서 연령과 세대는 완전공선성(perfect collinearity)이 발생하므로, 두 변수를 분해할 수 없다. 허석재의 위 논문은 20년에 걸친 다년도 자료를 통해서 연령효과가 지배적이며, 세대 간 차이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발견을 보고하고 있다.

46) Ryder의 앞의 논문에서도 세대 내 이질성을 낳을 수 있는 여러 메커니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47) Schuman and Scott, *op. cit.*

48) 앞서 언급했듯이 Mannheim도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집합기억을 통해 세대를 구성하는 데 미치는 영향도 심도 있게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노환희·송정민·강원택, 「한국 선거에서의 세대효과: 1997년부터 2012년까지의 대선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12권 1호, 2013, 113-140쪽.
- 박명호, 「2008 총선에서 나타난 세대효과와 연령효과에 관한 분석-386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8권1호, 2009, 65-86쪽.
- 박재홍, 「세대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쟁점」. 『한국인구학』 24권 2호, 2001, 47-78쪽.
- \_\_\_\_\_, 「세대명칭과 세대갈등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제와 사회』 통권81호, 2009, 10-34쪽.
- 어수영, 「세대와 투표양태」. 『한국의 선거 V: 제16대 대통령선거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2006, 227-268쪽.
- 윤상철, 「세대정치와 정치균열-1997년 이후 출현과 소멸의 동학」. 『경제와 사회』 통권 81, 2009, 61-88쪽.
- 이갑윤, 「한국선거에서의 연령과 투표참여」. 『의정연구』 14권 2호, 2008, 93-116쪽.
- 전상진, 「세대 개념의 과잉, 세대연구의 빈곤: 세대연구 방법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학』 38집 5호, 2004, 31-52쪽.
- 정진민, 「한국선거에서의 세대요인」. 『한국정치학회보』 26권 1호, 1992, 145-167쪽.
- \_\_\_\_\_, 「정치세대와 14 대 국회의원 선거」. 『한국정치학회보』 28권 1호, 1994, 257-274쪽.
- 정진민·황아란, 「민주화 이후 한국의 선거정치-세대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3권 2호, 1999, 115-134쪽.
- 조중빈, 「16대 대통령 선거와 세대」. 2004년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발표논문, 2003.
- 황아란, 「정치세대와 이념성향: 민주화 성취세대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15권 2호, 2009, 123-151쪽.
- 허석재, 『생애주기와 세대정치』.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Brim, Orville G. Jr. and Jerome Kagan, *Constancy and Change in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0.
- Braungart, Richard G., and Margaret M. Braungart, "Life Course and Generational Politics."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12, 1986, pp. 205-231.
- Brown, Roger and James Kulik, "Flashbulb Memories." *Cognition*, Vol. 5, 1977, pp. 73-99.
- Brown, Norman R., Peter J. Lee, Mirna Krslak, Frederick G. Conrad, Tia G. B. Hansen, Jelena Havelka, and John R. Reddon, "Living in History: How

- War, Terrorism, and Natural Disaster Affect the Organization of Autobiographical Memory.” *Psychological Science*, Vol. 20, No. 4, 2009, pp. 399-405.
- Cho, Jinam, and Kihong Eom, “Generation Effect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Presidential Elections.” *Asian Perspective*, Vol. 36, No. 3, 2012, pp. 353-386.
- Conway, Martin A., “The Inventory of Experience: Memory and Identity.” James W. Pennebaker, Dario Paez, and Bernard Rimé(eds.), *Collective Memory of Political Events: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New York: Psychology Press, 1997, pp. 21-46.
- Corning, Amy, Vladas Gaidys, and Howard Schuman, “Transformative Events and Generational Memory: A Case Study Over Time in Lithuania.” *Sociological Forum*, Vol. 28, No. 2, 2013, pp. 373-394.
- Coser, Lewis A. “Introduction.” Halbwachs, Maurice, *On Collective Memor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pp. 1-34
- Easton, David, “The Theoretical Relevance of Political Socialization.”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1, No. 2, 1968, pp. 125-146.
- Elder, Jr. Glen H., *Children of the Great Depression: social change in life experienc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4.
- Glenn, Norval D., *Cohort analysis*(2nd. ed.). Thousand Oaks, Calif.: Sage Publications, 2005.
- Greene, Anthony J., Colin Prepscius, and William B. Levy, “Primacy Versus Recency in a Quantitative Model: Activity Is the Critical Distinction.” *Learning & Memory*, Vol. 7, No. 1, 2000, pp. 48-57.
- Halbwachs, Maurice, trans. Lewis A. Coser, *On Collective Memor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 Holmes, Alison, and Martin A. Conway, “Generation Identity and the Reminiscence Bump: Memory for Public and Private Events.”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Vol. 6, Issue 1, 1999, pp. 21-34.
- Mannheim, Karl, “The Problem of Generations.” ed., P. Kecskemeti,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2(1928), pp. 276-322.
- Nash, Laura L., “Concepts of Existence: Greek Origins of Generational Thought.” *Daedalus*, Vol. 107, No. 4, 1978, pp. 1-21.
- Olick, Jeffrey K., “Collective Memory: The Two Cultures,” *Sociological Theory*, Vol. 17, No. 3, 1999, pp. 333-348.

- Pennebaker, James W. Dario Paez, and Bernard Rimé(eds.), *Collective Memory of Political Events: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New York: Psychology Press. 1997.
- Ryder, Norman B., "The Cohort As a Concept in the Study of Social Chan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30, No. 6, 1965, pp. 843-861.
- Rubin, David C., Tamara A. Rahhal, Leonard W. Poon., "Things Learned in Early Adulthood Are Remembered Best." *Memory & Cognition*, Volume 26, Issue 1, 1998, pp. 3-19.
- Sapiro, Virginia, "Not Your Parents' Political Socialization: Introduction for a New Generation."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7, 2004, pp. 1-23.
- Schuman, Howard, and Jacqueline Scott, "Generations and Collective Memo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 No. 3, 1989, pp. 359-381.
- Schuman, Howard, and Willard L. Rodgers, "Cohorts, Chronology, and Collective Memories." *Public Opinion Quarterly*, Vol. 68, No. 2, 2004, pp. 217-254.
- Schuman, Howard, and Amy Corning, "Generational Memory and the Critical Period: Evidence for National and World Events." *Public Opinion Quarterly*, Vol. 76, No. 1, 2012, pp. 1-31.
- Schwartz, Barry, "Memory As a Cultural System: Abraham Lincoln in World War II."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1, No. 5, 1996, pp. 908-927.
- Sears, David O., "Political Socialization." F. I. Greenstein and N. W. Polsby eds.,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Vol. 2, Reading, MA: Addison-Wesley, 1975, pp. 93-153.
- \_\_\_\_\_, "Life-Stage Effects on Attitude Change, Especially among the Elderly." ed. S. B. Kiesler, J. N. Morgan, and V. K. Oppenheimer, *Aging: Social Change*, New York: Academic Press, 1981, pp. 183-204.
- \_\_\_\_\_, "Whither Political Socialization Research: The Question of Persistence." O. Ichilov(eds.), *Political Socialization, Citizenship Education, and Democracy*,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1989, pp. 69-97.
- Sears, David O. and Nicholas A. Valentino, "Politics Matters: Political Events as Catalysts for Preadult Socializ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1, No. 1, 1997, pp. 45-65.
- Stimson, James A., *Tides of consent: How public opinion shapes American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Tessler, Mark, Carrie Konold, and Megan Rief, "Political Generations in Developing Countries: Evidence and Insights from Algeria." *Public Opinion Quarterly*, Vol. 68, No. 2, 2004, pp. 184-216.

Yang, Yang and Kenneth C. Land, *Age-Period-Cohort Analysis: New Models, Methods, and Empirical Applications*, New York: CRC Press, 2013.

**부록-역사적 사건과 코호트별 평가**

4 · 19	매우 긍정	대체로 긍정	대체로 부정	매우 부정	
1941-1950	21,85	60,50	16,39	1,26	100
1951-1960	25,21	58,82	13,95	2,02	100
1961-1970	23,47	59,78	13,20	3,55	100
1971-1980	21,48	52,94	20,52	5,06	100
1981-	16,40	57,79	20,29	5,52	100

Pearson  $\chi^2(12) = 52,955$  Pr = 0,000

5 · 16					
1941-1950	14,35	57,81	23,63	4,22	100
1951-1960	12,32	54,68	26,77	6,24	100
1961-1970	10,44	51,46	25,97	12,14	100
1971-1980	8,98	47,83	33,52	9,68	100
1981-	9,56	44,20	35,67	10,58	100

Pearson  $\chi^2(12) = 57,454$  Pr = 0,000

10월 유신					
1941-1950	7,69	39,82	40,27	12,22	100
1951-1960	8,61	36,83	39,24	15,32	100
1961-1970	6,97	38,06	37,06	17,91	100
1971-1980	5,96	37,41	38,75	17,88	100
1981-	7,12	34,42	43,65	14,81	100

Pearson  $\chi^2(12) = 14,080$  Pr = 0,296

5 · 18					
1941-1950	20,33	43,50	26,42	9,76	100
1951-1960	18,59	47,12	23,72	10,58	100
1961-1970	25,26	48,45	20,09	6,20	100
1971-1980	25,75	49,50	17,34	7,41	100
1981-	27,53	50,78	14,27	7,42	100

Pearson  $\chi^2(12) = 50,685$  Pr = 0,000

6월항쟁					
1941-1950	17,13	56,02	22,22	4,63	100
1951-1960	18,51	54,27	23,13	4,09	100
1961-1970	24,87	52,40	18,69	4,04	100
1971-1980	20,43	53,05	21,13	5,39	100
1981-	22,00	55,84	17,09	5,08	100

Pearson  $\chi^2(12) = 18,921$  Pr = 0,090

정상회담					
1941-1950	24,41	57,48	14,17	3,94	100
1951-1960	21,24	60,16	15,97	2,64	100
1961-1970	24,69	57,42	14,50	3,40	100
1971-1980	22,36	60,55	13,32	3,77	100
1981-	24,04	56,97	14,48	4,51	100

Pearson  $\chi^2(12) = 9,201$  Pr = 0,686



## 국 문 요 약

이 글은 한국의 정치세대가 공유하는 집합기억에 대해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정치세대는 성년 전후의 '민감한 시기'에 출생 코호트 집단이 함께 경험한 역사적 사건으로 구획된다. 기존 연구는 정치세대를 여러 시대적 기준에 따라 나누어왔는데, 출생 코호트 구성원들이 실제로 세대 정체성을 공유하는지는 탐구된 바 없다. 이 글은 사실로 전제되어온 세대구획이 경험적 기반을 갖는지에 대해 집합기억을 통해서 살펴본다.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에 대한 자전적 기억을 통해서 세대 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다. 더불어 그들 사건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세대마다 다른지도 따져보았다. 분석 결과는 '민감한 시기' 가설이 부분적으로만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세 전후 시기에 공통적으로 경험한 사건이 가장 많이 회고되는 경우는 일부에 그쳤다. 특히 가장 많이 집합기억으로 지목된 IMF 외환위기는 30대 중반에서 회고절정이 나타났다. 주요 사건에 대한 평가에서는 세대 간 체계적인 차이가 발견되지만, 차이의 규모는 미미한 정도였다. 요컨대 한국에서 집합기억은 세대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부분적으로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투고일** 2013. 12. 20.

**심사일** 2014. 2. 26.

**게재 확정일** 2014. 3. 6.

**주제어(keyword)** 정치세대(Political Generation), 집합기억(Collective Memory), 코호트효과(Cohort Effect), 회고절정(Reminiscence Bump)

### Political Generation and Collective Memory

Hur, Suk-jae

The paper examines the role of collective memory in identifying political generations. According to Mannheim, generation units common in the year of birth can develop into concrete group by sharing common historical experience, particularly in 'impressionable years'-late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While previous studies have classified political generations by critical events that birth cohorts experience in their youth, they fail to show the evidence that each generation have shared past, i.e. collective memory. Using survey data, I explore the generational difference in reminiscence bump of 'most important political events. Result only partially support the hypothesis that political generations have shared collective memory.